불교는 … 불교신문
불자의 의무이자 자부심입니다
구독신청 (02)730-4488

佛敎新聞

bulgyo.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회 발행

불기 2557년 3월 23일 (2013년 / 단기 4346년 음력 2월12일)

대표전화 (02)730-4488 제2898호

千年의 香을 듣는다
www.cwh.co.kr ☎ 054-933-6371

법안제출 활발…집행부 감독 철저 중앙종회의원 의정 활동 충실해져

193회 임시회, 종법 제·개정안 15건 중 9개 발의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의기관가는 등 당당하는 종회의원들은 지난 19일 개회한 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된 종헌 개정 및 15개 종법 제·개정안 가운데 3개 종헌 제·개정안을 발의, 입법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 또 의원들은 21개의 종책질의를 통해 중앙종무기관의 사업을 관리감독했다.

이번 회기 중앙종회 의원들이 발의한 종헌개정안과 9개의 종법 제·개정안을 보면 사찰법, 산중총회법, 선거법, 예산회계법, 중앙종회법, 불교정상의료수행원법 등 다양하다. 모두 사찰과 종단운영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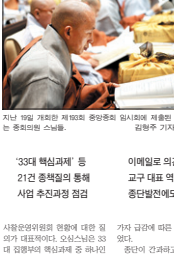
예산회계법은 호계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관한 사법기관으로서 위상에 맞는 지출하리를 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법제분과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주기에는 내용을 담아 입법기구로서의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은 법규위 심판대상에 관련한 준용을 위한 방안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가자가 급감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모색도 종책질의에 포함됐다. 오상스님은 단기출가를 출가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비구니 지출스님은 여성출가자 급감에 따른 종단대책을 물었다.

종단이 간과하고 있는 사회계 반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원스님은 이번 종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종단대책을 촉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종교기부금 사회변원를 탑구하고 재정에 대응해야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종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종무원장 자승스님은 승계(수계)관련특별조치법, 상장위원불법법, 법인법제정안을 중요 사안으로 꼽으며 "법인법 제정안 제안제한을 기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현경 기자 ennaso@bulgyo.com

'33대 핵심과제' 등 21건 종책질의 통해 사업 추진과정 점검



지난 19일 개최된 제19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검토하는 종회의원 스님들.

사찰운영위원회 연합에 대한 질의가 대표적이다. 오상스님은 33대 집행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승려노후복지기금 관리와 운용사업의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은 법규위 심판대상에 관련한 준용 사안의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은 법규위 심판대상에 관련한 준용 위원 위한 방안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가자가 급감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모색도 종책질의에 포함됐다. 오상스님은 단기출가를 출가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비구니 지출스님은 여성출

"수행 생활화' 이어 '승보공양운동'으로 확산

"출가·열반재일 풍경이 달라진다"

출가·열반재일 입재법회가 열린 지난 19일 새해 조계사 대웅전. 법회에 참가한 불자들이 저마다 핸드폰을 켜고 AB5 후원에 열중이다. 조계종 승려복지위원회 지원스님, 종무원 종무부장가 펼치고 있는 승보공양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1통화에 3000원씩,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도움이 없다는 생각에 손해서 핸드폰을 놓지 못했다. 법회가 끝난 이후에도 불자들은 조계사 마당에 마련된 승보공양 홍보부스에서 줄지어 승보공양 동참 신청서를 작성했다. "열스 스님들에게 받은 전화 보답"하기 위해, "불자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등 동참하게 된 취지는 각각 달랐지만 스님들을 위한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출가·열반재일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뜻을 마음에 새기고 정진기간 동안 수행에 매진하던 정진대전 전후에서 한 결을 나가 승보공양 동참하며 스님들에 보시를 위해 보시를 펼치는 학구적인 실천으로 변해 가고 있다. 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적정 없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가불자로서 있조하겠다는 취지다.

승보공양운동은 승려노후복지 기금을 모연하는 캠페인으로, 조계종은 지난 2011년 3월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스님들에 기초생활 보장, 의료보장, 노후수명복지 따른 등 복지

승려복지회, 캠페인 주도
신도회, 추진위 발족
종무원, 기금마련 통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승려복지원는 출가·열반재일 정진주간을 맞아 '범종도 승보공양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입재법회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승보공양 캠페인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춘)도 '승보공양실천운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승보공양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법회에서 류병선 승보공양실천운동 추진위원장(제9교구사진도위원장)은 "승보공양 실천운동이 사부대중의 아름다운 승가공동체 회복운동임을 자각하고 범종도 승보공양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포했다. 이와 함께 중앙신도회 승보공양추진위원회는 매년 사일 내에 신도조직의 승보공양운동 동참을 위해 AB5 후원의원를 개설하고 교육과 연수 등 각종행사마다 승보공양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앞장고 동참 유도할 예정이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심주완)도 승려노후복지지금 마련에 동참했다. 종무원조합은 지난 19일 오전조원에서 승보공양후원 동참시를 승려복지회 회장 지현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날 후원에 동참한 종무원들은 약 120여 명으로 매월 일정액을 후원한다.

승려복지회장 지현스님은 "승려노후복지에 마음을 모아준 종무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우리 스님은 우리가 모신다는 애리법의 생각이 넓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혜 전문기자 ipbaek@bulgyo.com

■ 박 대통령-종교지도자 첫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도와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사회 통합을 위한 종교계의 협조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사진)을 통해 "다양한 문화융성하여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 속에서 경제회복이 이뤄질오면 한다"며 "종교 수장님들을 대표해 적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불교계도 적극 협조와 도와줄 것"이라 강조했다.

사진=연합

홍다영 기자 hong0@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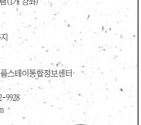
사찰음식 전문 역량 강화 교육 참가자 모집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 사업목적
사찰음식 전문가들의 프로그램 개발 의욕 고취 및 전문 역량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_ 2013년 4월 12일(금) ~ 14일(일) 2박3일간
· 장 소 _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충남 공주 소재)
· 수 강 료 _ 무료
· 참가인원 _ 총 30명(선착순)
  · 사찰음식 학화사찰 : 10명
  ·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 및 실무자 : 20명

· 프로그램 _
  · 이론/교양 프로그램(3개 강좌)
  · 조리/실기 프로그램(3개 강좌)
  · 토의 및 워크샵

■ 접수마감 : 2013년 4월 5일(금) 까지

■ 접수방법 : 전화-팩스-이메일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번지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4층 사찰음식팀 최소영 주임
· 전화: (02)2031-2026 / 팩스: (02)732-9928
· 이메일: csy0109@templestay.com